

여연구 여사가 회상한 몽양 여운형

SalvadorAllende



(1990년대 당시 북한에서 발행한 몽양 여운형 우표)

무릇 인생길에는 곧을 정(正)자도 있고 갈지(之)자도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는 여태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행운이었던가 싶다. 내 나이 고희에 이르러 새삼스레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특히 나의 인생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회 깊이 추억하게 되었다. 민족 수난의 시기에 태어나 망국의 설움을 안고 파란만장의 풍운을 헤쳐온 나의 아버지 여운형(呂運亨)은 이 나라의 근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수많은 반일 애국 열사의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해방 후 여러 차례 38도선을 넘어 평양에 와서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만나보았다. 나와 동생 원구는 1946년부터 김 주석 댁에 살면서 공부하였고, 또 다른 동생 영구도 평양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전쟁 때 죽었다. 난구 언니와 아저씨(이만규)는 1948년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때 평양에 왔고, 어머니와 동생 봉구는 전쟁 때 이북으로 왔다. 결국 우리 가족은 시기와 경로는 달라도 모두 이북에 모여 김주석의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을 감히 김 주석과 한 식솔로 여기는 데 버릇이 들었다.

그런데 1994년에 갑자기 김 주석이 별세하였다. 내 머리에 흰서리 내리도록 주석님 앞에서 응석을 부리며 살아온 지난날이 못 견디게 그리워지고 내가 오늘까지 곡절도 풍파도 모르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라온 것이 누구의 덕이였는가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떠나가신 지 반세기가 되었으나 오늘도 영생의 광망(光茫) 속에 살고 계신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해 보게 된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는 미래를 예언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한 생이 보다 값있고 아름답기를 바란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놓고 아버지의 지나간 인생 행로를 파헤쳐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뜻 펜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쓰자고 보니 어려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워낙 졸문인데다 수집된 자료가 너무 부족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여운형선생의 자녀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었다. [주체68(1979). 1]

(1970년대 당시 북한의 김일성과 몽양 여운형 선생 가족분들)

아버지가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한창 벌이던 젊은 시절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렸고 철이 들어서는 아버지와 함께한 기간이 너무 짧았다. 내가 알고 있는 자료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생활 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친지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다. 그것도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이 유실되고 삭막해졌다. 아직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고 되살리고 모아서 쓰다 보니 아쉬운 것도 많고 공백도 많다. 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밝히고 싶다.

첫째, 나의 아버지가 일찍이 독립운동에 발벗고 나섰던 초기부터 풍파 사나운 이국 땅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어떻게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구김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었는가.

둘째, 일제통치의 가장 엄혹하던 시기에 숭한 선각자들과 유명인사들이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포기하며 일제에게 아부굴종할 때 아버지만은 독야 청청하면서 마지막까지 민족적 지조를 견지하여 나갔는데, 과연 그러한 힘의 원천, 그 강毅한 신념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셋째, 지난 시기에 나온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글들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고 축소된 것들을 바로잡고 보충하고자 하였다.

자식인 내가 인생 황혼기에 아버지의 인생 행로를 더듬어 보게 되는 것은 자못 감회가 깊은 일이다. 나는 아버지가 길지 않은 인생 길에서 남들보다 곡절도 풍파도 괴로움도 많이 겪었지만 뜻을 바로 세우고 끝까지 깨끗하게 열렬하게 산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비록 미숙하나마 이 글이 아버지 여운형의 지향과 포부, 의지와 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 독자들의 사려 깊은 양해를 빌면서.

평양에서

여연구